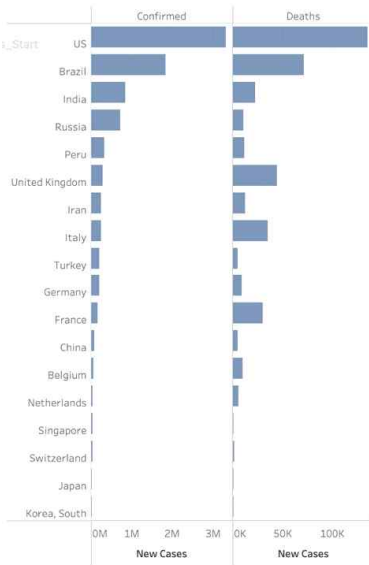


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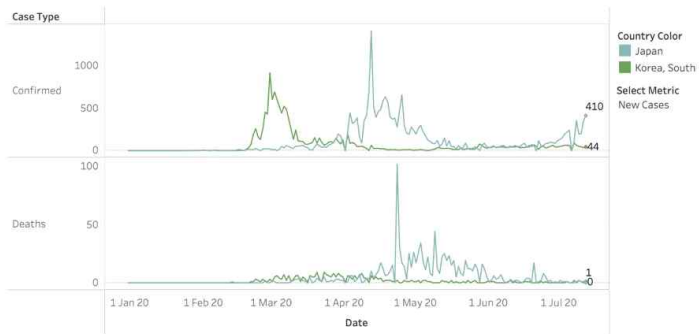
국가별 발생 건수



지역별 분포



일자별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위는 국가별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 도식화한 도표이다.

국가별 발생자 수는 미국, 브라질, 인도 순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망자 순위는 미국, 브라질, 영국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경우에는 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응이 늦거나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별 분포 그래프는 확진자 규모에 따라 원 크기가 커지며, 치명률¹⁾(CFR, case fatality risk)이 클수록 붉은 색으로 표시된다. 해당 지도를 보면 유럽쪽이 치명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 국가별 발생건수에서의 해석과 동일한 맥락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자별로 일본과 한국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코로나가 유행한 것은 한국이 일본보다 빨랐다. 그러나 확진자가 높아진 이후 사망자의 양상은 확연히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많은 확진자 이래로 다수의 사망자를 냈으나, 한국은 많은 확진자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확연히 적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전세계에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시기를, 위기에서의 국가별 대응과 정책 양상이 어떠할지 엿볼 수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한국은 대응 및 정책이 무척 좋았던 나라로 주목받았다.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위기가 와도, 위 코로나 시기처럼 잘 대응하길 기대하며 분석에 대한 견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코로나 19 확진 사례수와 확인된 사망자간의 비율(CFR)